

포교현장 누비는 비구니 스님들



비구니 스님들이 주변만 맴돌던 시대는 끝났다. '우연파워'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휘되고 있다. 전국 780여 경승 중 비구니 스님은 80여 명. 경찰 포교 현장 구축공적을 당당히 누비며 역량을 아낌없이 쏟아내고 있다.

포교하는데 못할 일 못할 곳 있나요?

"그 많던 어린이회, 학생회의 70%가 없어졌습니다. 어린이·청소년 포교의 붐을 다시 조성해야 합니다." 어린이 포교의 1번지 경기도 화성 신홍사에 전화를 걸었을 때 성일 스님(신홍사 청소년수련원장)은 새해 벽두부터 목소리를 높였다.

청소년 문화포교로 불심 불씨 지핀다

새해 포부를 물어도 돌아오는 대답은 처음과 같았다. "중요한 것은 80년대에 성황을 이뤘던 어린이 포교의 붐을 다시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부모들부터 계몽해야 해요. 컴퓨터 확한반 보낼 게 아니라 집에 올 때 아이들 깨워서 같이 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비구니 스님 '파워'는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 분야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다. 전국 780여 경승 중 비구니 스님은 80여 명. 경찰 포교 현장 구축공적을 당당히 누비며 역량을 아낌없이 쏟아내고 있다.

상담·다도 체험 통해 경찰들 마음 다독여

비구니 경승의 포교 역량은 신행상담에서 여실히 확인된다. 대전서부서 경승 종심 스님(연화사 주지)은 4년 전부터 '상담불사'를 벌이고 있다. 스님은 매주 범우회원 신행지도는 물론 전·외경들의 생활고충까지 해결해주고 있다.

정혜 대우 법수, 세 스님은 바닷가 구경 갔다 아예 외항선을 타 버린 스님들이다. '외국 땅'이라는 망망대해에서 한국불교를 전하고 있는 세 스님은 부처님 법에 목말라하는 그곳 불자들의 눈빛을 외면하지 못했다.

홀로 이국 땅서 불법 전파 "현지인 포교에 더욱 매진"

중국의 상황은 훨씬 열악하다. 북경 불자회를 잠시 맡았다 올해부터 남경(2월)과 상해(7월) 불자회를 이끌 대우 스님은 "남경과 상해는 아직 법당이 없어 불자들이 집을 돌려 '가정 법회'를 보고 있다"며 "아무리 작더라도 법회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올해의 목표"라고 말했다.

한국의 비구니 스님 <2> 묘엄 스님

한국 최초의 비구니 강사

"부처님 말씀보다 더 좋은 법문이 어디 있다고 법문을 청해." 수원 불영사 승가대학장 묘엄(妙嚴·사진) 스님께 법문을 청하자 한마디 특 내뱉은 말씀이다.



스님은 1931년 진주에서 출생했다. 젊어서도 공부할 수 있다는 말에 14세에 출가해 문경 대승사에서 월해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여전해 대학교로 치면 1학년이라고 할 수 있는 강원 치문반 학생들을 직접 지도한다. 처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스님의 평소 생각 때문이다.

일흔 넘어서도 치문반 학생 가르쳐 "일생동안 하나에 전념해야 선지식"

이 버린 강통을 얻어놓고 기다림 속으로 심지를 만든 뒤 지꺼기 솟음 모은 걸 연료삼아 주경야독했다. 다음날, 얼굴과 콧구멍이 새까맣게 변해 이를 본 도반 스님들이 산천이 떠나가도록 웃었다고 한다.

경전공부, 사중살림을 하더라도 외곬으로 파고드는 것이 바로 '선지식'이라고 강조한다. 스님에게 '필리미터'라는 별명이 따라 다닌다. 당시뿐 아니라 후학들에게도 한치의 오차도 허락하지 않는 엄격함 때문에 붙여진 것이다.

방생 및 삼사순례 안내

삼보전에 귀의 합니다. 각 사암 대덕 큰 스님께 인사 올립니다.

본 성모암은 **진목대사**님께서 탄생하신 불거촌에 효행을 실천한 사찰로서 진목대사님 어머니의 묘소와 더불어 진목대사님의 영정을 봉안한 도량으로 가까이에는 진목대사께서 육신방생의 유래가 있는 100만명의 능제 저수지가 자리한 해동의 최고 방생지이며 방생과 더불어 금산사·망해사·홍복사·봉서사를 연결하는 삼사순례의 적격지입니다. 조사님의 혼이 머무는 본도량에 왕림하시어 일체 서원을 이루시길 사부대중과 더불어 발원합니다.

오시는 길

- 호남고속도로 전주 IC에서 군산방면 - 대야점문소에서 김제방면으로 10분 거리
- 서해안 고속도로 동군산 IC, 서김제 IC에서 5분거리

종무소 ☎ (063)544-0416 (사전에 필히 전화 접수바랍니다.)
 Fax 063)542-6991 www.sungmoam.net
 점심공양을 무료로 해드립니다. 하루 일천명의 점심공양 가능(무료)

전북 김제시 만경읍 화포리 불거촌 388번지

성모암 대중일통

건강 100% 적중

냄새를 완전 제거하여 놀라운 효능을 갖춘 식품이면서 "여성생활에도 으뜸"이 되고 있는 **토종마늘환(丸)**

미늘이 좋은걸 일면서 냄새때문에 망설인 분들께서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토종마늘은 예로부터 '일해백리'의 식물로 불려 왔습니다. 사람들에게 백가지 이로움 점을 가지고 있는 뛰어난 식물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알리신이라는 성분때문인데, 이 알리신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활성화 시켜 줍니다. 마늘속에 들어있는 비타민 B1은 몸에 흡수된 당질을 에너지로 바꾸어줌으로써 피로감을 없애주고 온몸의 기능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혈압,혈당치를 낮추고 정력,간기능,시력을 높여주고 손발냉증, 변비, 요통이 사라지며 강한 항암작용 및 다이어트, 미백효과, 중풍, 신경통, 당뇨병 등에 효과를 나타냅니다. 또한 최근의 연구결과 마늘의 주요성분인 알리신에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항암작용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전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강장·장정·식욕부진·정장·변비·보은·향균·구충·정신안정·이뇨·혈압강화·각기·신경통·신경마비 등에 효험이 있다.

100% 토종마늘은 무엇이 다른가?

- ▷ 건강식 또는 양념으로 써온 식물로 다양한 약리 작용을 한다.
- ▷ 장(腸)에서 흡수가 잘되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한다.
- ▷ 세포내 침투가 잘되고 성기능을 강화 시킨다. 혈순환이 잘된다.
- ▷ 항암작용을 한다. 성인병 예방과 정력 증강에 효과가 있다.
- ▷ 고혈압은 낮추고 저혈압은 정상치로 끌어올린다.
- ▷ 비타민C와 섭취하면 당뇨에 효과가 있다.
- ▷ 인체내 지방을 분해해 비만 예방에 특효가 있다.
- ▷ 만성 감염에 효험이 있다.
- ▷ 비만, 심장병 예방에 특효.
- ▷ 식사량을 줄이지 않고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다.

◎ 표준소비자가 특별분할 : 42,000원 × 4개월 = 168,000원(6개월분)
 ◎ 공주양잠농업협동조합 직거래 사업단 02)755-9821. 080-200-4545